10 광주일보
제17588호 2006년 10월 30일 월요일

햇포도주 '보졸레 누보' 세일

롯데백화점 내달 15일까지 예약판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예약판매를 통해 '보졸레 누보'를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15일까지 예약판매를 받아 프랑스 남부 보졸레산 햇 포도주인 보졸레 누보를 할인판매 한다"고 29일 밝혔다.

판매가는 6개들이 1박스가 12만원이며 6개들이 1박스를 구입할 경우 와인잔 세트를 제공하고, 12개들이 1박스 구매고객께는 그로쏘 와인 1세트를 무료로 증정한다.

보졸레 누보는 해마다 9월에 수확한 포도를 4~6주 숙성시킨후 11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해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시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병일 식품팀장은 "보졸레 누보는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일반적포도주보다 약간 차가운 섭씨 10~13도에서 보관하고 생선류·햄·샐러드·케이크 등과 함께 마시면 좋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實利가 없다

1 "외제·대형차면 최고"
2 명품없으면 '짝퉁'이라도?
3 "아파트 이름 바꿔주세요"
4 외면당하는 중고시장
5 화순 로즈베이커리의 교훈

물건값 80% 싸도 찾는 사람 없어

"명품·신제품만 선호"… 그릇된 소비심리 만연

서울구제시장은 강남부유층 '알뜰쇼핑' 줄이어

"장사 안 돼요. 매년 9~10월에 매출이 가장 많은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에도 못 미쳐요."

광주시 북구 D중고판매업체 직원의 퉁명스런 대꾸에서부터 '불황'이 묻어나고 있다. 오랜 경기불황으로 신제품보다 중고제품을 찾는 고객이 많은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D업체는 1천여평의 매장에 가전·가구 등 생활용품에서부터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수만점의 중고상품을 전시·판매해오고 있다.

이 직원은 "물건값도 신제품의 20~30%에 불과한데 찾는 고객이 없다"면서 "그나마 책상·의자 등 사무용품이나 식당집기 등을 찾는 고객들이나 40~50대 알뜰주부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 겨우 전화요금이나 인건비를 챙기는 정도"라며 울상을 지었다.

광주시내 중고컴퓨터 판매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97년 IMF 이후 중고 PC와 주변기기 등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한때 호황을 누렸던 중고컴퓨터 판매점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광주시 동구 A컴퓨터 대표는 "실제로 조립데스크톱 PC, 노트북 PC, 그래픽카드 등 리퍼블리싱(재포장) 제품은 신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나 신제품만 찾는 세태 때문에 고객들이 발걸음이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각 구청별로 헌옷을 모으기 위해 골목마다 비치하고 있는 헌옷함에도 세탁만 잘 하면 수년동안 입을만한 헌옷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 종로 5가역 근처에 있는 광장 구제시장은 늘 중·고생들로 붐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한번 이상 입었던 옷(구제옷)을 값싸게 판다는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구제시장에서 티셔츠는 3천원대가 주를 이루고, 아무리 비싸도 5천~6천원을 넘지 않는다. 가을에 인기가 많은 가죽재킷은 3만~4만원대에 날개돋친듯 팔려나간다.

특히 이 구제시장에서 '명품'으로 불리는 브랜드의 모피코트나 가방 등이 나온다는 소문에 싼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는 서민들 뿐 아니라 가격에 상관없이 '특이한 제품'을 찾는 강남 부유층 주부들의 '알뜰쇼핑'도 잦아지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에 대해 C대 J모 교수는 "광주지역의 경우 '명품' 혹은 새로운 제품만을 찾는 어른들의 그릇된 소비심리가 어린이들에게까지 '투사'되면서 어린이들의 소비행태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실속있는 건강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역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DIY(Do It Yourself) 바람을 타고 손뜨게가 다시 각광받고 있는 점은 '명품'보다 '개성'을 요구하는 흐름"이라며 "소비도 인간성 회복차원에서 건강하게 회복돼야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목포동부시장 23억들여 현대화 마무리

목포시 동부시장이 최근 아케이드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대화된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 현대화 사업에는 380m 구간에 모두 2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중소기업청이 60%, 목포시가 30%, 상인자들이 10%를 부담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화합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늘 신선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은 내년 18억원을 투입, 300여m의 아케이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삼성전자 은나노 드럼세탁기 20종 출시

삼성전자는 '은나노 헹굼', '은나노 불림' 기능으로 살균·항균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2007년형 하우젠 은나노 드럼세탁기 신제품 20여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은나노 살균·항균시스템을 세탁에서부터 불림·헹굼까지 세분화해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 10개 세탁코스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기옷, 운동복 등 세균·곰팡이에 취약한 세탁물에 적합한 '은나노 파워항균' 코스, 이불, 커튼 등 때가 잘 빠지지 않는 세탁물을 위한 '은나노 불림세탁' 코스, 세탁조의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악취를 막아주는 '은나노 통세척' 코스 등을 추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친환경 전남쌀 산지체험에 참여한 유통바이어 등 수도권 관계자들이 남평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도권 소비자 100명 '전남쌀' 생산지 체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와 전남도는 지난 28~29일 수도권 소비자(초등학교 교장단, 유통바이어 등) 100여명을 초청, '2006년 수도권 소비자 산지체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나주·보성·강진·해남·영암 등 친환경 전남쌀 생산단지와 함께 나주농업박람회, 보성녹차밭 등을 둘러봤고 강진 옴천토하와 영암단감 수확체험을 했다.

또 전남농협은 유통바이어와 300억원에 달하는 친환경 전남쌀 구매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순천농협은 수도권 (주)하나유통과 50억원 규모의 친환경 전남농산물 구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전남농협 김수공 경제부본부장은 "학교급식 질 향상에 안전한 농협쌀이 함께한다는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전남농가의 쌀값지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판촉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혁신형 中企 200개 돌파

광주·전남 지속 증가세
중기청 '맞춤 지도' 성과

광주·전남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10월말로 200개를 돌파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에 따르면 이노비즈는 지난해 123개사에서 85개(69%) 증가한 208개사로 집계됐다. 2005년 12월 123개에서 올 3월 131개로 늘어난데 이어, 6월 155개, 10월 20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이노비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 1 맞춤형 현장방문 지도효과가 큰 효과를 거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자금이 대폭 확대되고 정부에 따라 이노비즈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올 안에 이노비즈 인증획득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지정된 이노비즈는 기술신보의 보증지원과 14개 협약은행의 신용여신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시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5점 가점)받게 되고 신용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2점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중기청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정혁신지신지원사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 참여시 가점을 받고 공공기관 지원사업(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 특허청 특허출원 우선심사대상)에서도 우대혜택을 받는다. /이종태기자 jtlee@

자산관리 도움 받으세요

여성대상 무료 증권특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료 증권특강이 광주에서 열린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 다음달 1일과 2일 상무지구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증권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재테크에 관심있는 여성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특강은 첫날 '성공으로 가는 자산관리 및 내게 맞는 자산설계'란 주제로 재무설계와 투자상품의 선택방법 및 투자전략, 참가자들의 재산상태 진단 등으로 진행되고 둘째날은 '글로벌시대 한국증시 알기'가 소개된다.

광주·전남지역협의회는 "가계경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여성의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효율적 자산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특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062)367-2237 /장필수기자 bungy@